Commodity

북극 한파 노출된 천연가스, 그러나 퇴장 앞둔 계절성

Commodity Analyst 최진영
jinyoing.choi@daishin.com

- 다시 찾아온 북극 한파, 난방 수요를 넘어 가스전 생산 차질 가능성까지↑
- 매력적인 가격 방향, 데이터센터가 만들 수요 구조 변화+미래 유가발 상승
- 그러나 문제는 계절성+라니냐의 이른 후퇴, 당장은 단기 하방 변동성 유의

다시 찾아온 북극 한파, 난방 수요를 넘어 가스전 생산 차질 가능성도 급부상

천연가스 가격은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지난해 12월초 이후 3달러까지 추락하던 천연가스는 주간 기준으로 30여년래 최대폭으로 급등했다. 이처럼 천연가스 가격이 비상하게 된 배경은 날씨에서 찾을 수 있다. 바로 라니냐발 북극 한파이다. 19일 미 국립기상청(NWS)은 미국 전역이 2월까지 강력한 한파에 노출될 것이라 예보했다. 겨울철 평균 기온이 +13℃인 텍사스 북부까지 영하로 내려갈 것이라 예상되면서 난방 수요를 넘어 2021년초와 같은 가스전 생산 차질(동파)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매력적인 가격 방향, 데이터센터가 만들 수요 구조 변화와 미래 유가발 상승

가격 방향마저 낙관적이다. 바로 1)폭발적으로 팽창될 전력향 수요이다. 그동안 데이터센터와 가스전 개발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됐지만 가스터빈의 출하가 지연(약 3년반)됐던 탓에 전력난은 해결되지 못했다. 하지만 2022~2024년 주문됐던 가스터빈은 출하를 앞두고 있다. 통상 가스터빈의 시운전 기간이 7~8개월임을 감안하면 올해 하반기 본격적인 전력향 수요를 기대할 수 있다.

2)미래 유가발 상승 역시 기대 요인이다. 천연가스는 메탄 위주의 건성 가스(Dry Gas)와 탄화수소를 함유한 수반 가스(Associated Gas)로 구분된다. 지질학적으로 깊은 지층에서 발견되는 건성 가스와 달리, 중동, 러시아 등에서 생산되는 수반 가스는 비교적 얕은 지층에 분포하여 원유와 함께 생산된다. 천연가스 가격이 유가와 높은 상관관계를 띠는 것도 이 때문이다. 4/4분기경 유가가 유동성(선행 지표인 금 가격)을 뒤늦게 반영할 것을 가정하면 천연가스 역시 7~8달러까지 상승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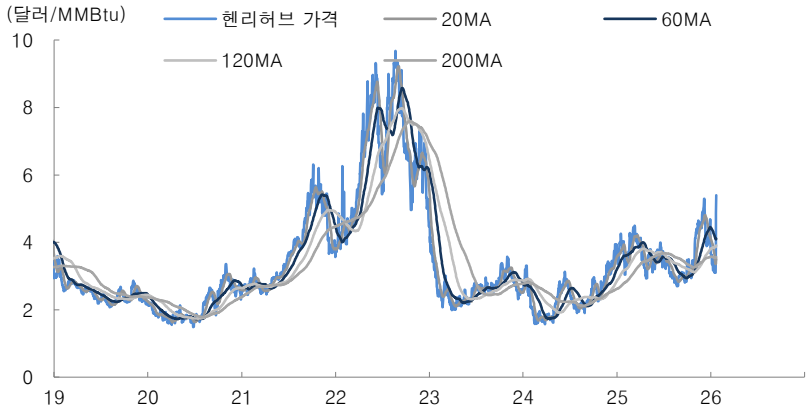
그러나 문제는 계절성과 라니냐의 이른 후퇴, 당장은 단기 하방 변동성 유의

그러나 당장은 경계가 필요하다. 바로 계절성의 후퇴이다. 천연가스 재고의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매년 10월부터 익년도 2월까지 감소폭이 확대되다 3월부터 다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난방 시즌의 후퇴이다. 이번주부터 교체될 헨리허브는 3월물로 재고 증가를 반영해야 한다. 가격 하방 변동성이 커질 시점이 다가온 것이다.

특히, 이 상황에서 북극 한파를 동반하는 라니냐의 후퇴는 하방 변동성을 키울 요인이다. 20일 CPC/IRI 측은 3월까지 라니냐가 유지되겠지만 이후부터는 엘니뇨로 전환될 것이라 예보했다. 엘니뇨는 무역풍(서태평양향)의 이동 속도가 둔화되는 과정에서 출현하는데 제트기류의 남하 흐름을 바꿔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형성시킨다. 2023년 10월~2024년 3월 천연가스가 난방 시즌임에도 부진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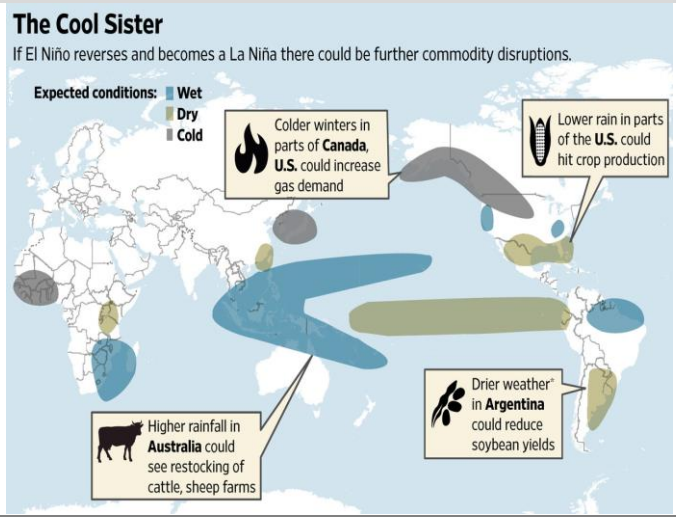
천연가스 가격은 여전히 매력적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요 구조의 변화와 미래 유가발 상승 가능성을 고려하면 올해 말 7~8달러까지 상승이 가능하다. 다만, 지금 가격은 수요 구조의 변화라기 보다는 단기적인 계절성에 더 가깝다. 그러한 점에서 기존의 낙관적인 View를 유지하되 월물 교체 이후인 2월부터는 2달러대까지 하방 변동성에 유의할 것을 권고한다.

그림 1. 장중 5 달러선 재돌파한 미 천연가스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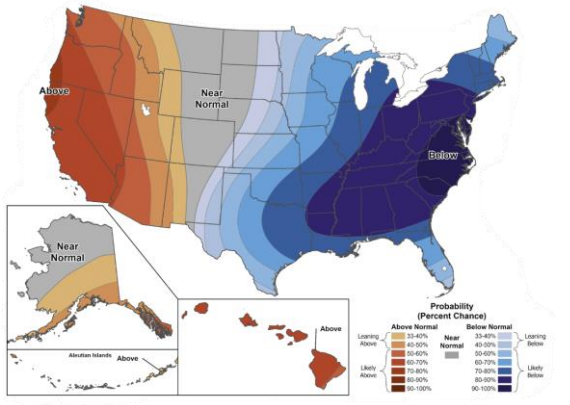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2. 원인은 라니냐발 북극 한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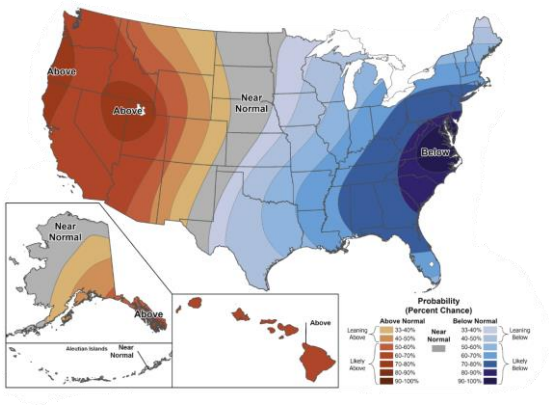
자료: WSJ,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3. 이는 난방 수요에 대한 기대 강화시킨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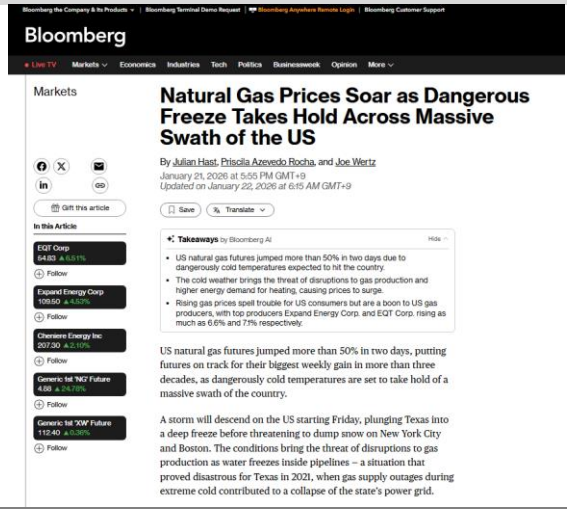
주: 향후 6~10일 기온 예보
자료: NOAA,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4. 2 월초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보된 북극 한파



주: 향후 8~14일 기온 예보
자료: NOAA,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5. 특히, 남하하게 된 북극 한파가 가스전의 생산 차질(동파) 가능성까지 자극


Bloomberg

Markets

Natural Gas Prices Soar as Dangerous Freeze Takes Hold Across Massive Swath of the US

By Julian Hast, Priscila Azevedo Rocha, and Joe Wertz

January 21, 2026 at 5:55 PM GMT+9

Updated on January 22, 2026 at 6:15 AM GMT+9

Takeaways by Bloomberg A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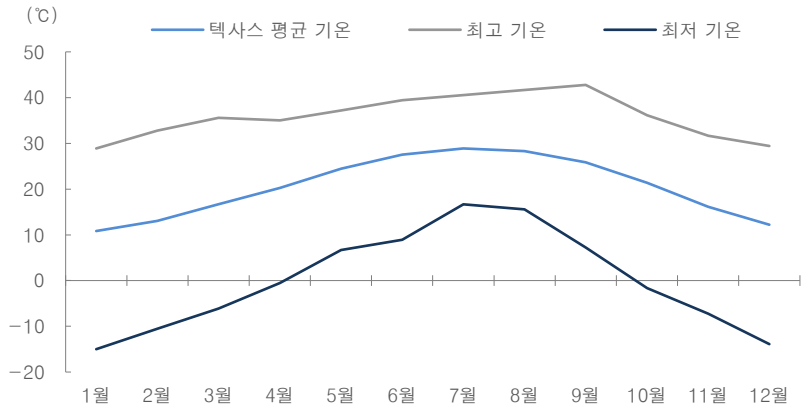
- US natural gas futures jumped more than 50% in two days due to dangerously cold temperatures expected to hit the country.
- The cold weather brings the threat of disruptions to gas production and higher energy demand for heating, causing prices to surge.
- Rising gas prices spell trouble for US consumers but are a boon to US gas producers, with top producers Expand Energy Corp. and EQT Corp. rising as much as 6.6% and 7.1% respectively.

US natural gas futures jumped more than 50% in two days, putting futures on track for their biggest weekly gain in more than three decades, as dangerously cold temperatures are set to take hold of a massive swath of the country.

A storm will descend on the US starting Friday, plunging Texas into a deep freeze before threatening to dump snow on New York City and Boston. The conditions bring the threat of disruptions to gas production as water freezes inside pipelines – a situation that proved disastrous for Texas in 2021, when gas supply outages during extreme cold contributed to a collapse of the state's power gr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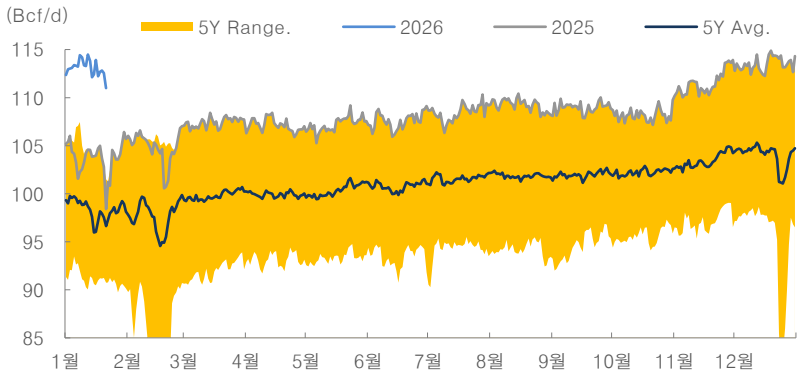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6. 실제로 겨울철 평균 기온이 +13℃인 텍사스 북부 지역은 한파 예보된 상황



자료: NWS,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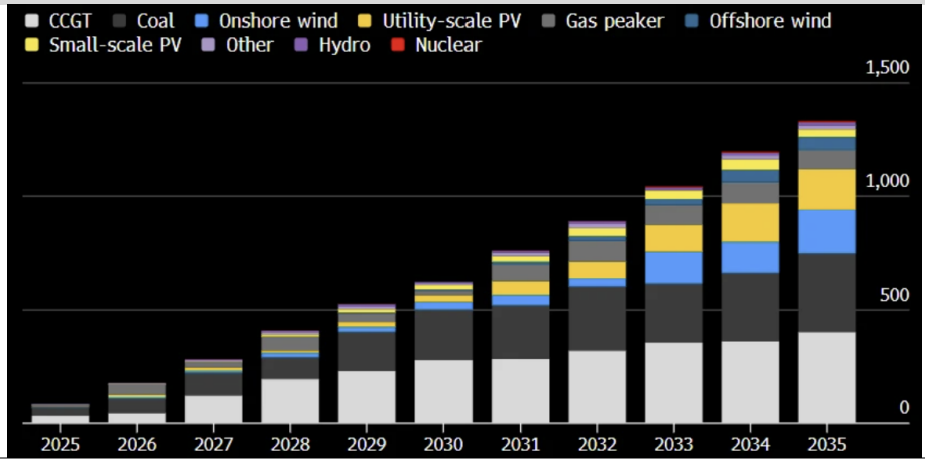
그림 7. 2021 년 2 월에도 라니냐발 북극 한파가 가스전의 생산 차질 발생시켰다



주: 미국 건성 가스 생산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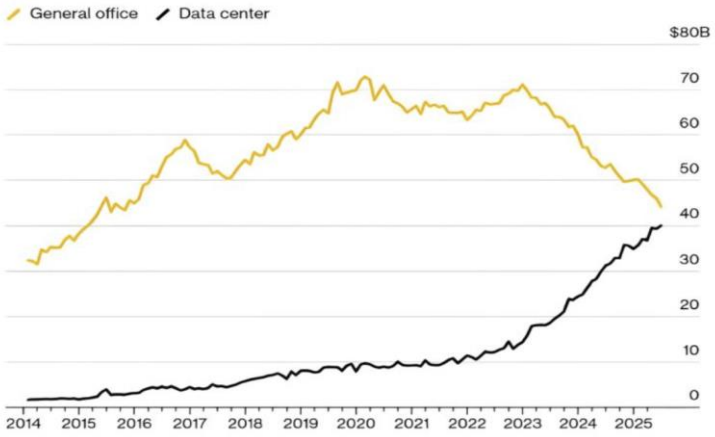
자료: EIA,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8. 가격 방향마저 낙관적, 폭발적으로 성장할 전력향 수요가 그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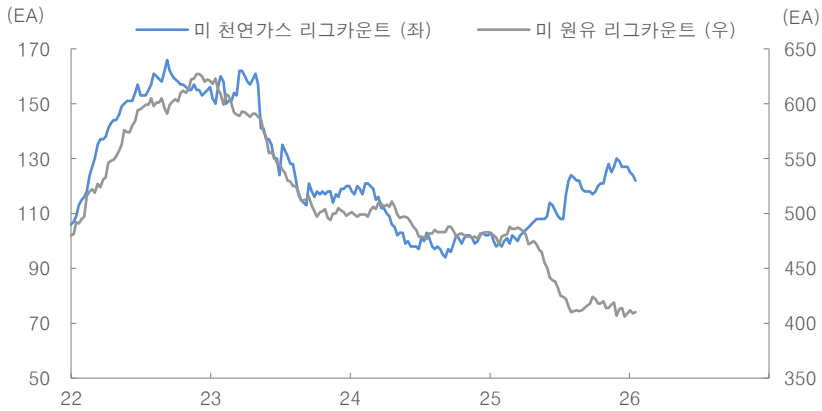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NEF,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9. 그간 빠른 속도로 확장된 데이터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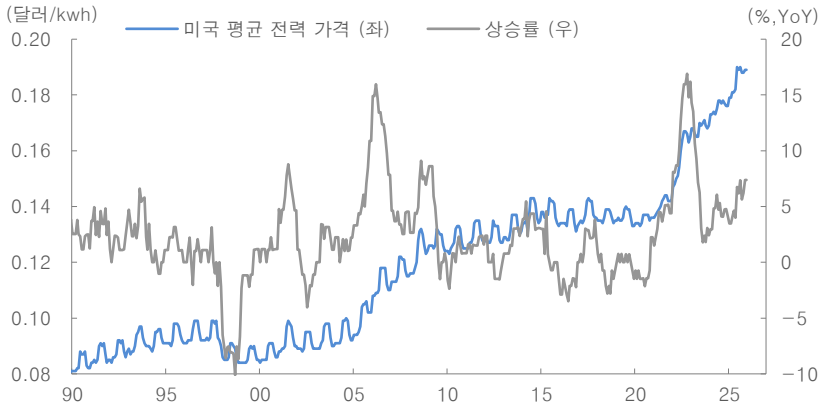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0. 이 같은 미래 수요에 맞춰 확장이 재개됐던 가스전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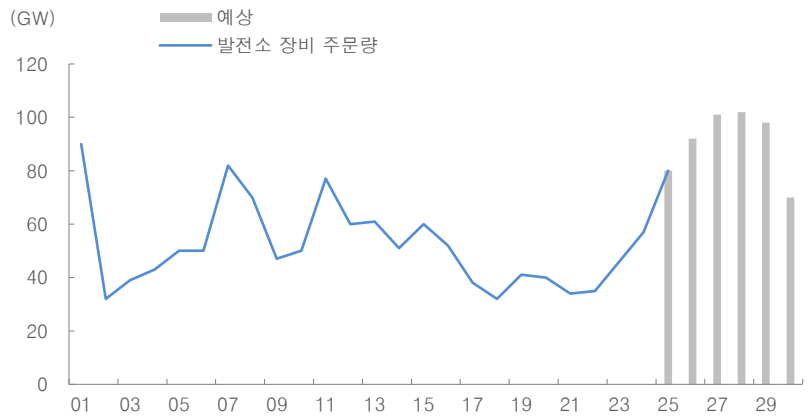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1. 그럼에도 전력 수급이 불안정했던 이유는 가스터빈의 출하 지연(3 년반 소요)



자료: FRED,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2. 그러나 과거 주문됐던 가스터빈은 이제 출하. 시운전 감안, 연말 가격↑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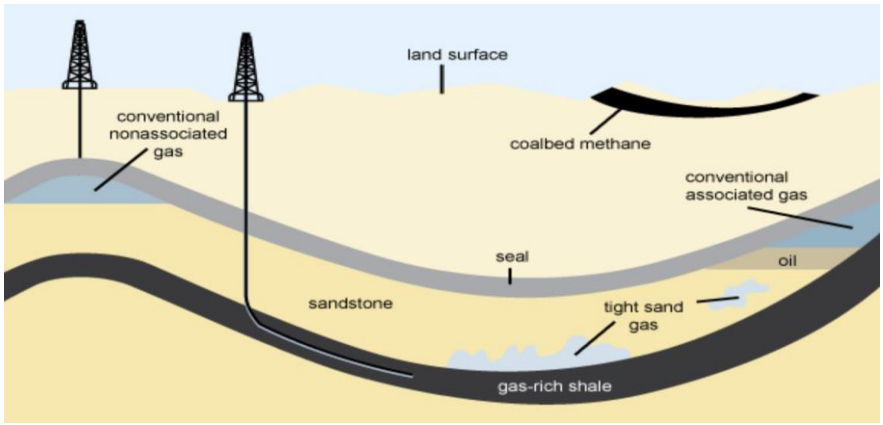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3. 4/4 분기부터 뒤늦게 유동성 반영할 유가, 미래 유가발 상승 역시 기대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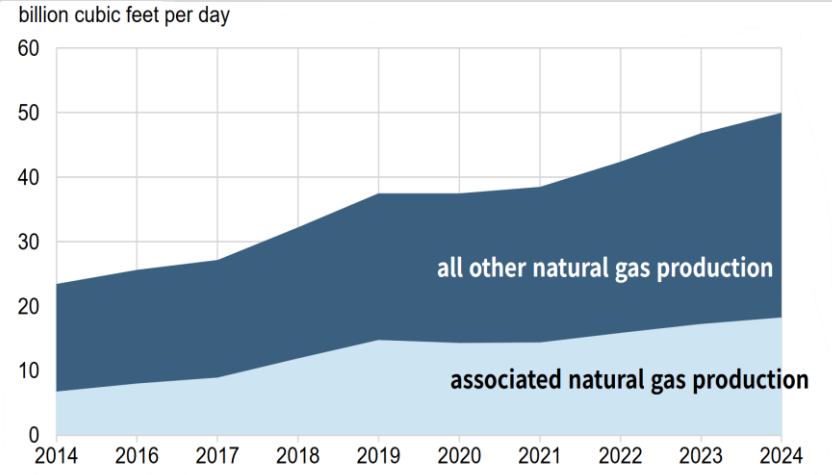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4. 원유와 함께 생산되는 수반 가스(Associated G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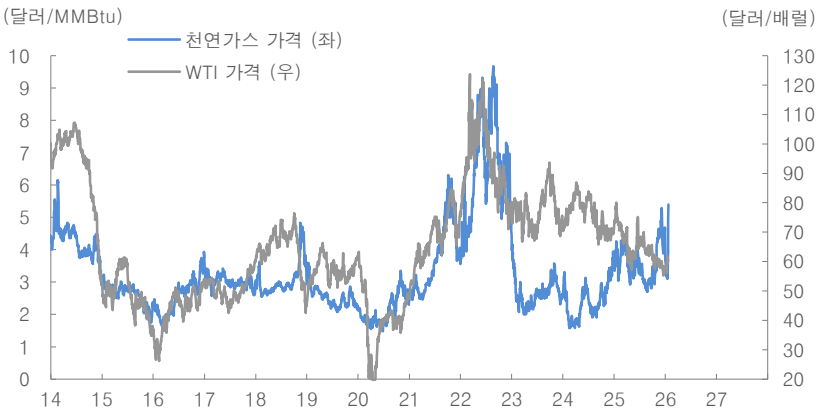
자료: EIA,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5. 공급 비중으로 봐도 결코 작지 않은 물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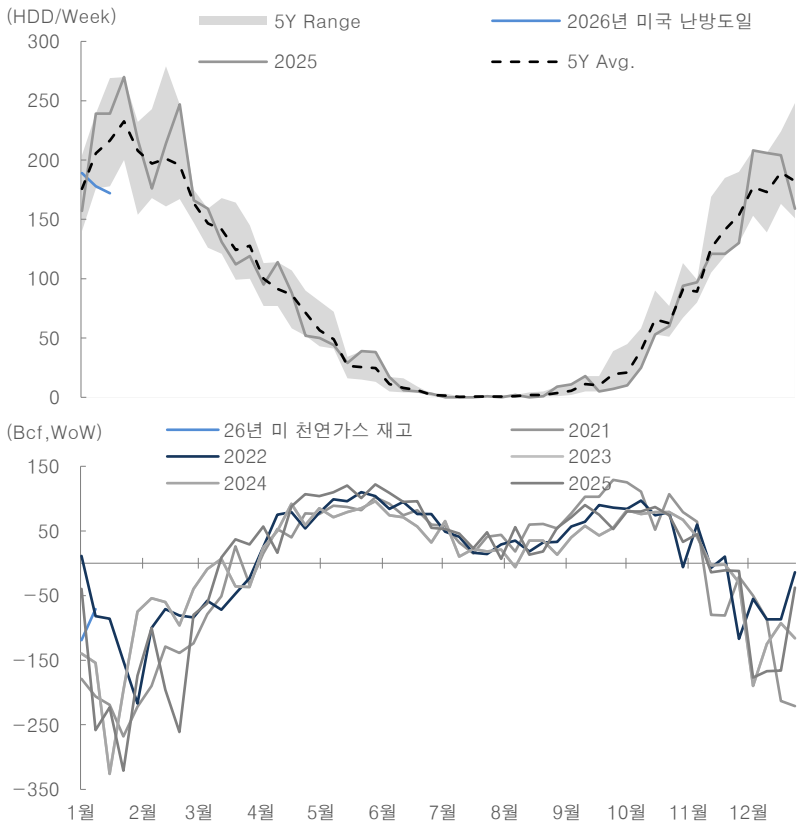
자료: EIA,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6. 추세적으로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동반하는 이유, 4/4 분기가 기대되는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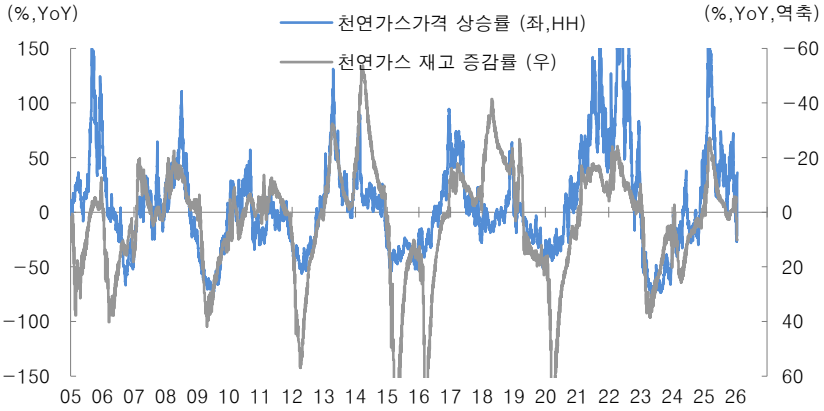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7. 그러나 당장은 경계 필요, 2월 이후부터 난방 시즌 점차 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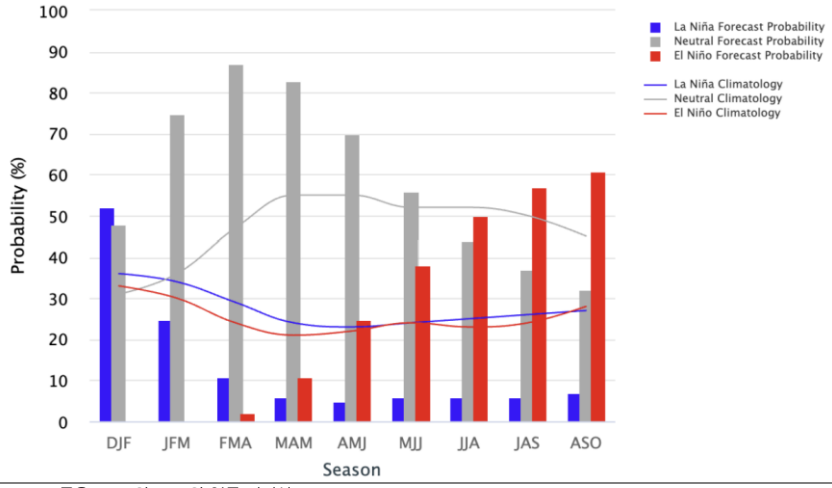
자료: EIA, NOAA,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8. 천연가스 가격 측면에서 계절성 후퇴는 가격 하방 변동성 자극하게 될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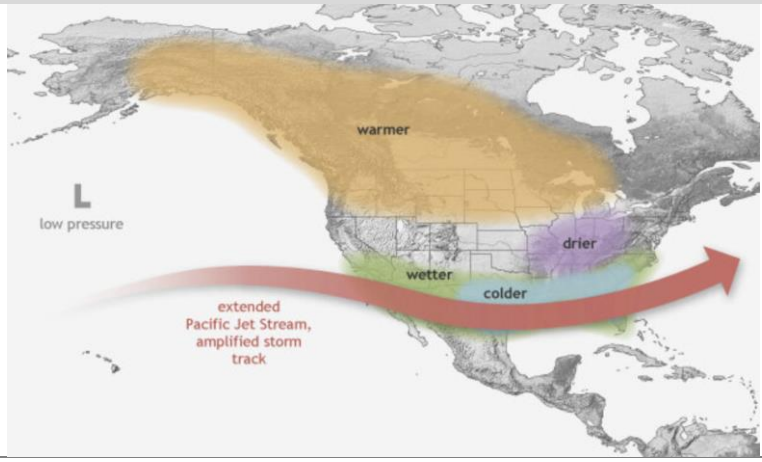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EIA,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9. 계절성에 맞춰 후퇴하게 될 라니냐 역시 고민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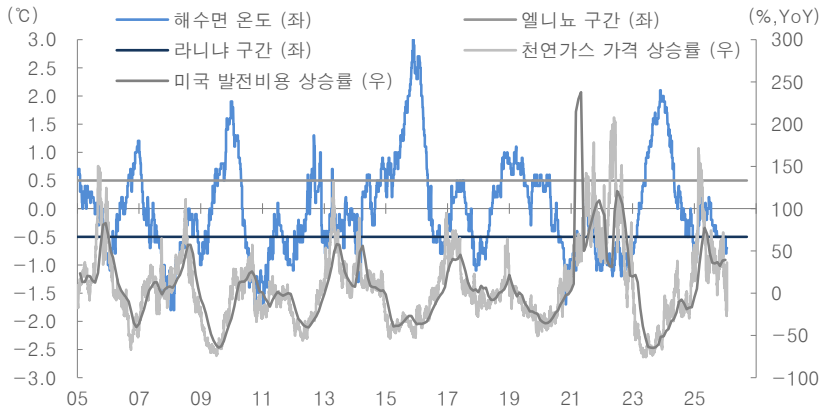
주: DJF, JFM 등은 12~2월, 1~3월 영문 이니셜
자료: CPC/IRI,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20. 라니냐의 후퇴는 북반구 기온을 평년보다 온화하게 만든다



자료: FRED,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21. 북극 한파까지 야기하는 라니냐까지 퇴장하면 하방 변동성 한층 더 강화 가능



자료: NOAA,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담당자: 최진영)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